

# 공의 입장에서 세상 쳐다보고파

<空>



모임을 즐겼던 것도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

“내 주위에 한문, 서지학, 철학, 불교학 하는 별놈들 다 있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을 만들고 해서 좋다고 했다. 이왕은 이류중생(異類衆生)이란 말에서 따온 것인데, 동류만을 이해할 게 아니고 다른 류도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소참은 작은 모임이란 말이고, 무슨 조직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듣자는 것이었다.”

매월 한 번 모임을 열었는데, <다윈의 식탁>의 저자, 원자력 연구자, 검사 등등의 사람들도 불러서 얘기를 나눴다. 2년을 이어왔던 모임이 얼마 전 중단됐다. 맞춤형 모임방을 제공했던 달마사가 큰 공사에 들어갔고, 마땅한 모임방을 찾는 게 또 일이 되어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종림 스님은 만화를 무척 좋아한다. TV와 인문·물리·생물 등 주제를 가리지 않고 책을 즐겨 본다. 어느 글에서 “꿈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차라리 도사나 길 걸 그랬나?” 그랬던 여전히 초탈을 꿈꾸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 만화와 TV는 그만의 에너지 충전법인데, 이것 말고 또 있다. 여행이다. 1년이면 열 번쯤 외국을 다녀온다. 대부분 대장경 전산화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업무 때문이다. 이런 여행 말고 때로는 머리가 터질 것 같으면 슬쩍 빠져나온다.

“니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게 있어야 한다.

이건 실패가 없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안해야 한다. 일상만 따라가지 말아라. 니가 좋아하는 게 기회가 되기도 한다.”

슬쩍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의 변명 같기도 한 그의 여행론 혹은 충전론이다.

내친 김에 몇 군데 추천해달라고 청했다. 돈황, 상그릴라, 카라크룸, 에어즈 락(Ayers Rock), 수미산 등의 지명을 기억해내더니, 수미산과 에어즈 락은 한번 가볼만 한 곳이라고 말했다. 에어즈 락은 호주의 사막 한가운데 불끈 솟은 바위 덩어리다. 가장 가까운 도시인 엘리스 스프링스에서 남쪽으로 335km 떨어져 있다. 높이가 348m에 둘레가 9.4km에 이른다. 단일 암석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 호주의 원주민인 애버리진들이 신성시하는 곳이다. 종림 스님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꼼짝 않고 있었다”고 했다.

종림 스님은 대장경연구소가 오래도록 있었던 이태원에 가끔 가고, 가고 싶어 한다. 공짜로 만화책을 빌려줬던 만화방, 공짜 목욕탕, 공짜 식당이 그대로 있다.

“이태원은 우리 사는 거랑 딱 맞아. 거기엔 시간 개념이 없다. 밤낮이 없다.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오가는 국제 거리다. 큰 길을 가운데 놓고 위에는 부자들의 성이고, 아래는 골목길에서 화투치는 풍경이 있고, 이질적인 것이 한데 어우러진 데다.”

60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순일곱이다. 대장경 전산화의 마무리는 아직 멀다.

“후원자들에게 고맙고, 내년이면 나는 끝이다. 책보고 좋아하는 것 할기다.”

종림 스님은 작년에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재미있게 봤다고 했다. 진화론에도 재미를 붙였다. 프로이트 얘기로 이어졌다.

“프로이트는 말년에 유일신적인 사고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그의 생각거리였다. 그도 유태인이어서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쫓겨나 영국에서 활동했다. 유태인을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유태인이 어떻게 했길래 미움을 받는가, 말년에 이 의문을 푸는 글을 남겼다. 아마 <모세와 유일신앙>일거야. ‘유일’이 어떻게 보편화될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나카자와 신이치의 <대칭성 인류학>도 재미있게 봤다.”

<대칭성 인류학>은 나카자와의 카이에 소바주 시리즈 중 하나로 밖에서 본 불교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인데, 신화를 통해 불교와 세계를 보는 시각이 흥미롭다.

“내년에 대장경 일 그만 두고, 책 보고 가끔 글도 써볼기다. 생각대로 필지는 나도 모른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공(空)의 입장에서 세상을 쳐다보는 일을 할 기다.”

글=정성운 기자 woon1653@hanmail.net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83. 비구니 독립운동가 상근·윤호 스님

독립운동 자금을 담당한 비구니 상근 스님은 14세에 출가해 금강산에서 선을 익혔다. 상근 스님은 3·1운동 당시 상경해 만해 한용운, 백용성, 백초월, 이종욱, 신상원 스님 등 기미독립운동에 참가한 스님들을 도와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승인동 청룡사 주지였던 상근 스님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며 불교계 독립투쟁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백용성 스님이나 백성욱, 김법린 등 많은 스님들은 후세의 노력으로 독립운동 활약상이 널리 알려졌으나, 상근 스님만큼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상근 스님의 당호는 인월당이며, 어머니와 언니도 모두 출가해 3모녀가 비구니스님이 된 스님집안이었다. 상근 스님은 1872

났는데, 만공 스님은 윤호 스님에게 ‘백련(白蓮)’이란 호를 내렸다. 25세에 다시 청룡사로 와서 상근 스님을 시봉하며 포교활동에 전념했다.

윤호 스님은 30세에 선학원 일봉 스님께 비구니계를 받고 35세 때 선지식을 찾아 만행을 하다 오대산에서 한암 스님을 뵈고 ‘묘각(妙覺)’이란 법호를 받는다.

동방 청룡으로부터의 호국안민을 기원했던 것이다.

윤호 스님은 상근 스님의 곁에서 평생 스님이 금강산 마하연, 장안사, 표훈사, 금강산 신계사와 수원 용주사, 예산 정혜사, 서울 개운사, 오대산 월정사 등에 무상보시하는 것을 보아와 불사에 아까움이 없었다.

윤호 스님은 상근 스님의 유지에 따라 곡각전과 시왕전, 산신각, 심검당, 우화루를 중창했으며



청룡사 대웅전.

### 독립자금 조달 상근 스님, 말년에 도제 양성·가람수호 힘써

년 9월 6일 한성부 동부 교동에서 태어났다.

10세에 어머니가 서울 동대문구 승인동 청룡사에서 출가해 범명 청수를 얻었다. 이어 그 해 여름에 언니인 금전 스님이 창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상근 스님도 2년 뒤인 1883년 9월 24일 12세로 창수 스님을 은사로 청룡사에서 출가했다.

나는 상근 스님의 상좌인 윤호 스님과 인연이 닿았다. 윤호 스님은 1907년 광주에서 태어나다섯 살에 청룡사 주지 상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금강산 관음암에서 살던 스님은 12세에 상근 스님이 청룡사 불사를 시작하자 곁에서 시봉했다. 나이가 들자 어렵게 추억이 서려있는 금강산을 다시 찾아 21세에 신계사 법기암에 들어가 석주 탄월 스님 밑에서 선을 익혔다. 윤호 스님이 23세 때는 마하연으로 내려와 만공 스님을 모시고 세 철을 지

그 뒤 윤호 스님은 다시 청룡사로 돌아와 노쇠해진 상근 스님을 시봉하며 평생을 보냈다.

상근 스님이 말년에 도제 양성과 가람수호에 전력을 다하며 서울 청룡사 증축불사에 뜻을 뒀기 때문에 윤호 스님은 그 유지를 이어 받았다.

청룡사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공민왕 왕비 해비와 단종의 정순왕비, 태조의 제2왕비 소생인 경순공주가 출가하는 등 궁실여인이 출가한 사연이 많았다. 청룡사는 조선왕실 여인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연유로 조선시대 역불승유 정책에도 서울 사대문 인근에 존재할 수 있었다.

조선조의 갖은 핍박과 법난 속에서 지켜온 호국사찰에서 한 비구니가 어떻게 불사를 일으키니 동대문 일대의 불자들이 모두 불사에 동참했다. 동방이 밝아져서·남·북이 밝아지기 때문에 상근 스님은 청룡사 불사를 통해

절 주위 600여 평의 땅을 사사격을 높였다. 불교계의 독립정신을 간직하기 위해서였다.

청룡사는 이러한 뜻을 이어 지금도 매주 초하루 화엄신중기도를 통해 호국안민과 불일증취를 기도하고 있다. 탄허 스님이 <신화엄경>의 대자불사를 이곳에서 완성하기도 했다.

현재 청룡사는 유치원을 경내에 마련해 운영하는 등 중창불사에 뜻을 모아준 지역불자들의 성원을 회향하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

호국불교의 맥을 정신과 물질 양면에서 지켜 온 두 스님, 이러한 스님들이 있기에 호국불교, 민족불교로서의 위상이 국민들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두 스님의 정신이 어려웠던 청룡사는 비구니스님들의 빠져진 절가와 민족이 혼을 보듬고 오늘도 서있다.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민족사**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禪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임서다.

윤창화 지음 / 46만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만 양장 / 328쪽 / 값9,500원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압축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만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제, 천도제, 예수제, 기도 백백만년, 울 마니 만대 음,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만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만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증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만 양장 / 27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고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만 양장 / 320쪽 / 값9,500원